

2010 WAO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참석 후기

인제의대 해운대 백병원 알레르기내과
박찬선

2010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World Allergy Organization (WAO)에서 주최하는 제1회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가 열리는 아랍 에미리트의 두바이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Asthma and Co-morbid conditions: Expanding the practice of allergy for optimal patient care"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회는 71개국에서 약 1,400명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전체적인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매 세션이 천식 환자를 진료할 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세계적인 석학들의 훌륭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 첫날에 있었던 postgraduate course에서는 "Meet the Expert" 처럼 딱딱한 강의가 아닌 연자와 참석자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총 24의 주제 중 4가지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으며, 일부 강의실에서는 발표자의 슬라이드가 작은 화면에 비춰져 잘 보이지 않거나 마이크가 준비되지 않아 질문자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 점들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둘째날부터 시작된 Plenary session은 "Update on asthma and lower airway co-morbidities", "Asthma & upper airway co-morbidities", "Asthma and endocrine co-morbidities", "Asthma and COPD: Present and future therapies"등 천식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동반 질환과 최적의 천식 조절을 위한 여러 가지 접근법을 기본적인 내용부터 최신 지견까지를 다루었다. 보통의 국제 학술대회는 매우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발표가 섞여있으며 임상적인 내용뿐 만 아니라 기초학과 최신의 실험결과가 두서없이 머리 속을 채우는 데 비해, 이번 학회에서는 천식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임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지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연구결과를 습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밖에도 hereditary angioedema의 최신 지견과 새로운 약제를 다룬 symposium과 asthma와 endocrine disease를 다룬 session을 통하여 평소에 흔히 접하지 못하였던 질환과 치료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학회 일정 내내 여러 세션과 포스터 발표의 좌장으로 활약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포스터 발표에서의 수상을 하신 선생님들을 보며 국제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학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주의대 박해심 선생님께서는 심포지엄의 연자로 “asthma and nasal polyp”과 “Occupational rhinitis and asthma”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으며, 단국의대 지영구 선생님께서는 단독으로 좌장의 역할을 하시면서도 자연스러운 진행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주셔서 감명받았다. 또한 약 100여 개의 발표 초록 중, 김정은(아주대 내과)선생님, 지영구(단국대 내과)선생님, 신승엽(경희대 이비인후과)선생님이 Outstanding Poster Awards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다.



<사진 1.> 포스터 발표와 학회장에서의 모습

또한, 이번 학회를 통해 한번쯤 가보고 싶었던 두바이를 방문했던 것과 평소 여러 교수님들과 선후배 선생님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또 하나의 큰 수확이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구성하는 7 개의 토후국(土侯國; 수장(首長)이나 실력자에게 지배되는 국가) 중 하나로 1966 년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Creek 이라고 불리는 작은 강을 중심으로 어업과 소규모의 상업 위주로 하는 작은 도시였으나 ‘검은 황금’ 석유와 상상력의 힘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룬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막도시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마천루를 이루는 높은 빌딩들과 고급스러운 리조트들은 두바이의 화려한 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 공사가 중지된 것처럼 보이는 건물과 빈 건물들이 보여 을씨년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되돌아오는 날 저녁에는 사막투어에 참가하였는데, 아라비안나이트에서의 모래언덕과 오아시스를 상상하였던 터라 조금은 실망스러웠으나 이국적인 분위기와 멋진 사막의 일몰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그림 2.> 두바이에서의 즐거운 한때 (버즈 칼리파에서의 야경(중), 사막에서의 일몰(우))

개인적으로는 삶의 터전을 부산으로 옮기고 새로운 병원에서 알레르기내과를 개설하고 검사실 setting 에 정신 없이 지냈던 나에게 이번 학회참석은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소중한 선물이었으며, 유난히 추웠던 2010 년 겨울을 뜨겁고 아름답게 추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멋진 사진을 보내주신 김상하 선생님(원주의대 내과)과 김정은 선생님(삼성창원병원 내과)께 감사드린다.